

배포 일시	2022. 6. 9.(목)		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기범 (044-201-3775)
	건축문화경관과	담당자	사무관 김성자 (044-201-3779)
보도일시	2022년 6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한옥 전문가” 가 되고 싶다면 지금 준비하세요

- 한옥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담기관 지정·발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2022년도 「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」을 전담할 한옥설계 및 시공 전담 교육기관을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- 한옥설계과정에 3개 대학(명지대학교, 전남대학교, 전북대학교)과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1개 기관(한옥문화원)은 교육생을 선발하고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.
- ‘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’은 한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약 13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해왔으며, 올해는 160명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구분	한옥설계 전문인력	한옥시공 관리자
지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65백만원 * 우수기관 135백만원×1개소 * 일반기관 115백만원×2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15백만원
교육기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소
교육인원 및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기관별 40명 내외 * 건축사, 건축사사무소 종사자, 건축분야 기술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기관별 40명 내외 * 한옥교육(3개월이상)이수자, 건축분야 기술사·기사·산업기사 등
교육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개월 이상(160시간 이상) * 교육(주8시간*19주)+봉사활동(8시간) * 심화과정 110시간 이상 편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개월 이상(160시간 이상) * 교육(주8시간*19주)+봉사활동(8시간) * 심화과정 110시간 이상 편성

□ 각 교육기관에는 총 4.8억 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, 교육생은 소정의 교재비, 답사비 등 소정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.

-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 입문과정 외에 복합형 한옥설계, 한옥 설비·보수·유지관리 등 심화과정을 `19년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한옥설계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,
-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은 치목, 재료시공 실습, 공정계획, 품질 및 하자관리 등 한옥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.
- 특히, 그동안 한옥 연구개발(R&D) 사업의 성과인 신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증 한옥의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신기술 확산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.

□ 교육생 선발은 기관별 일정에 맞추어 6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, 교육과정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
- 교육과정은 각 기관별로 교육대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, 온라인 이론강의, 현장실습, 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전문가 특강, 지역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.
- 교육대상은 건축사, 건축사사무소 종사자, 건축분야 기술자 등으로 각 교육기관의 교육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.
-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유선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.

* 명지대(www.ice2.mju.ac.kr, 031-330-6401), 전남대(www.jnu.ac.kr, 062-530-0879), 전북대(www.jbnu.ac.kr, 063-219-5221), 한옥문화원(www.hanok.org, 02-741-7441)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이 사업을 통해 한옥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면서,
- “한옥이 건축물 탄소 배출 저감과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 등 미래건축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옥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